전도 접촉점, 마귀도 찾고 있다

(민25:1~18)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도 접촉점, 마귀도 찾고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전도 접촉점, 마귀도 찾고 있다'

요즘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노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접촉점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며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이질적인 문화의 껍데기로 싸여있는 무슬림 문화권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이고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질적입니다. 불교도들이나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나, 거꾸로 믿음을 상실한 서구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복음전도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접촉점이 유용하게 기능하므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너무나 합

리적이고 타당한 질문 같습니다.
이러한 접촉점의 문제는 이질적인 문화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의 같은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절실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사춘기가 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접촉점이 몹시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접촉점의 모색이 문제 될 때마다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공통점입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과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소통의 다리를 삼는데 이것이 접촉점입니다. 요즘은 이런 접촉점을 의식하는 전도의 일환으로 “맞춤형 전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전도가 내가 만들어놓은 기성복을 파는 식의 전도였다면, 이제는 전도를 하려는 상대방에게 마치 맞춤형 양복을 지어주는 것처럼 접촉점에 크게 관심하는 맞춤형 전도가 먹혀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접촉점을 모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거부감 이질감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를 두는 것이 접촉점 찾기의 핵심 강령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마귀와 사탄이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고 선민의 공동체인 교회에 물 타기를 위해서 작전을 펼칠 때에도 우리와 똑같이 접촉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탄도 똑같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의 침투를 위해서 그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원리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이 예외 없이 세상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데 원죄적 보편적 현상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철옹성 애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그 마음 상태에서 보이는 어떤 요소를 우리들과의 공통점으로 찾고 접촉점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접촉점을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가는 강도보다 그들에게 있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원죄적 본성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선민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늘 친화적인 성향보다는 세상 친화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접촉점을 문으로 열어놨을 때에 내게서 나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내게로 오는 것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동성애를 보세요. 캐나다 연합장로교회가 진즉에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따라 간다고 하면 미국은 자존심 상해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온 신학교마다 핫 이슈가 동성애였는데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니 저렇게 뒤집혀버립니다. 하버드대학의 Divinity School을 가도 그렇고 예일대학의 신학부를 가도 그렇고 신학을 한다는 곳에서는 한 마디로 속된 말로 골통보수가 아닌 다음에는 동성애가 신학의 가장 우선적인 주제였고 반대를 하더라도 그 주제에 빠지다보면 결국은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접촉점은 없습니까? 어쨌든 접촉이 되어야 복음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접촉점을 둘 때에 거꾸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면, 진정한 복음을 위한 접촉점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느냐는 것인데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의 문제는 마귀도 원하는 그 접촉점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11km떨어진 싯딤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류하는 동안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수행한 곳도 이곳인데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합니다. '바알브올'이란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일컫는 우상의 이름은 다 아시지요. '브올'이란 지역을 말하는데 브올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서울이면 바알서울이고 대전이면 바알대전입니다.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바알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말려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바알 신에게 처녀들이 헌신의 표시로 신전을 찾아온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이 제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이 바알 신전의 음행에 가담하게 되고 그 신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함께 먹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몇 달도 안 되어서 브올에 있는 바알 신의 제사에 깊이 가담하게 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죄의 기질이 세상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온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 친화적으로 넘어가버리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고, 서양 속담의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 같이 쉬운 일로 순식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몇 개월을 싯딤에 체류하는 동안에 바알 제사에 확 말려들고 깊이 빠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생각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선민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차단하고 막으셨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복된 레일 위에 선민을 올려놓으심으로써 어떤 저주도 그들에게 직접 주어질 수 없도록 하셨는데, 선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쉽게 져버리고 스스로 이 복된 레일의 궤도를 벗어나서 타락해버립니다. 사탄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에게 저주를 직접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저주 가운데로 들

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음행한 자들에게 염병이 퍼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두령들을 잡아 죽인 시체를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아 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았다'라는 것은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동시에 바알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향해서 '오! 나의 희망, 오! 나의 태양'이라고 숭배했던 것인데 부자 되는 것, 부흥하는 것, 형통하는 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근본 마음이고 심리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알브올에게 복속되는 일이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발람의 간교한 궤계를 따라서 발락이 행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2: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리라"라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락에게 가르쳐준 발람의 궤계 안에서 그 교활함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라고 했으면 단 한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발람이 그 교활한 머리로 선민 안으로 침투할 접촉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선민의 울타리 안에서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았을 때에 바알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희망을 뜻하는데 바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으로 부자 되는 것과 이 세상의 일이 형통하는 것과 부흥함으로 수가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에 선민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신탁에 의지하지 않고 발락에게 궤계를 베풀고 복채를 받아간 것입니다. 끈질기게 복채에 대한 집착을 성취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접촉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발람의 생각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들 간의 접촉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모압이나 미디안처럼 다른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럴 때 접촉점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발람을 통해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640km를 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미디안과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태양을 향하여 있고, 다시 말해 바알을 향해 있고, 풍요와 다산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부자 되는 것과 부흥하는 것과 같

은 가치들을 향하여 마음의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바알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이나 모압 사람들의 마음에도 풍요와 다산의 이름이 담겨있어서 열망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과 미디안의 공통점인 접촉점을 발견하고 찾다보니 풍요와 다산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풍요와 다산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궤계를 발락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풍요로운 삶과 부흥의 삶이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도 똑같다. 그러니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한 것인데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고 있던 대중가요 틀어주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 방법을 뭐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밥이나 먹자고 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향한 열망이 접촉점이 되고 주목적이 되다보니 이것이 모압 사람들의 바알 숭배와 겹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풍요와 다산을 여호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같은 목적인 풍요와 다산을 바알을 통해 얻으려고 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합치게 되므로 하나님과 바알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나중에 왕국시대에도 그런 일이 자행되게 됩니다. 참 묘하지요.

'종교다원화'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풍요와 다산이 아니더라도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접촉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인격적인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좀 똑똑하다는 지성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평화, 평등, 박애, 무소유, 이타적인 삶, 생명의 경외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 옛날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버지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나 평화나 박애나 평등이나 자연사랑이나 생명경외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다보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출발점에 있지 않느냐는 망발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알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하여 단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귀도 원했던 것이고 결국은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세상과 내막이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장로 선거할 때에 보세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할 때와 뭐가 다릅니까? 돈이 뿌려집니다. 교인들에게 물건이 택배로 배달됩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떡을 나눠줬는데 시루떡 속에 장로로 입후보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의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접촉점을 발견한다면 바로 마귀가 기다리는 접촉점입니다. 세상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귀의 바람이 바로 그 접촉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점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다음에 꼭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만나실 때에 예수님이 언제나 고려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당신이 만나고 있는 불신자와의 접촉입니다. 내가 불신자를 만날 때에 불신자와 나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만나면 그 불신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와 하나님의 접촉점으로서 당신의 지상에서의 삶을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선교의 접촉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와 그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밀어 넣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 내 인격, 내 존재 자체가 접촉점이 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알을 상징하는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게 하는 것처럼, 먼저 나의 희망이고 꿈인 세상을 향해있는 내가 죽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데 세상에 대해 완전히 끝을 내는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방향이 틀어진 나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셔서 마음이 하나님께 머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상의 나의 자리로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을 장갑으로 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끼신 그 손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불신자를 어루만져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9: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는 하는 말씀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었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2: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는 이 원리가 사

도 바울의 선교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셨을 때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만나는 대로, 율법이 있는 자를 만나면 있는 자를 만나는 대로, 없는 자를 만나면 없는 자를 만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다 주관하시면서 선교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접촉점은 나 자신의 인격이 복음적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접촉점이 되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선교의 방법이 나타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교의 원리는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원리적 도그마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들려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거부감과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십자가라는 마크마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그대로 세상에 말려들어간 것이고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안한 그 접촉점을 마귀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세상에 대해 죽자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됩니다. 어설프게 세상의 흉내를 내는 이런 식의 접촉점의 모색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같은 잡다한 초등학문에 기초를 둔 발상에 따라서 조잡한 접촉점을 찾다보니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과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해낸 것인데 어리석은 것이지요. 전혀 안 먹힐 것 같은 십자가를 전혀 어색한 분위기에서 내 마음속으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생활화를 수행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장갑이 된 내 앞에서 발광을 할 정도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조차도 어떤 식으로라도 고꾸라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 이상한 접촉점을 찾아 헤매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